

미국에서의 태권도 보급과 세계화를 위한 일생의 집념과 노력



## 버클리 대학과 나의 만남- 한국의 얼을 심는 무도인으로

1928년부터 유도 강의가 시작되었을 정도로 오랜 유도 역사를 가진 버클리 대학에 나는 1969년에 부임하게 되었다. 이곳에 오기 전 나는 조지아주와 몬태나주 등지에 있는 세 곳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그후 동부 몬태나 대학에서 조교수로 직장생활을 시작했었다. 그러다가 버클리 대학에서 교수 채용이 있자, 버클리대학의 체육과의 무도 실기 담당교수로서 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취직 되었다. 유도 공인 5 단과 태권도 4 단의 무도 실력등 충분히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장래가 보장될 수 있는 종신교수(Tenure Track) 자리에 취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취직된 것이 나에게서 기쁨을 넘어서 아주 명예로운 일이었다. 버클리 대학에 부임하는 첫 날 나는 나의 인생 목표인 무도 교육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였다.

체육학의 정식과목으로 실기지도인 유도와 카라테, 기타 스포츠 종목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다 보니, 내가 가르치는 카라테가 체육학과 실기과목 중에서 제일 인기있는 종목이 되었다. 그래서 곧 나는 카라테라는 과목 명칭을 태권도로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가르치는 기술이 태권도였기 때문이다. 그 우선적인 절차로서 1970-1972 학년도 2년간을 학과 목록에 강좌이름을 ‘카라테-태권도’로 기록했고, 1972년부터는 다행히 태권도를 대학 학점 이수과목 목록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태권도 과목은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다. 가을 학기부터 체육학과 태권도 수업에 등록하지 못한 많은 학생들과 한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방과 후그들을 모아서 일주일에 두 번씩 무보수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화, 목 양일을 가르쳤는데,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체육학과에서 학점을 주는 태권도 수업은 월요일과 수요일에 있고, 과외 클럽활동으로 진행되는 태권도 수업은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있다. 또한, 유도와 용무도(합기도) 수업은 그와 반대로 체육과 과목으로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클럽수련으로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한다면 한 주에 4번까지도 수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게다가 주말에는 각 무도 시합, 세미나, 심포지움등의 일정으로 눈코 뜰새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었다.



1970년대 서부지역 대학 시험 우승자들과 각 대학 코치들과 함께

버클리대학에는 미국의 전통적인 무술 스포츠인 복싱과 레슬링이 교과목으로 있어서 격기 운동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양무술인 유도, 태권도등은 자연히 레슬링과 복싱의 결방살이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지금도 많은 대학이나, 기독교 청년회(YMCA),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Recreation Center)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와 같은 여건에서 체육과목도 레슬링과 복싱 수업이 우선이고 태권도와 유도는 항상 다음으로 취급되어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 수록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나의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 태권도, 유도 등 동양무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바뀌어 갔고, 중국에는 레슬링과 복싱은 체육과목에서 없어지게 되었으며, 이제는 학교 클럽 활동에서 마저도 복싱만이 자원 봉사 졸업생에 의해서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사실 복싱은 미국의학회에서 학교 체육으로는 너무 위험하다고 규정되었으며, 몇 개 안되는 대학들에서만 명맥이 유지되는 실정으로 버클리에서도 일찍 체육과목에서 삭제되었다. 레슬링도 무도와의 경쟁에서 결국 밀려나더니 담당 교수가 정년퇴직을 하고 난 후에는 과목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그 대신 방과후 레슬링 수업이 끝나는 저녁 10시에야 비로서 가르칠 수 있었던 태권도를 비롯한 무도 종목들이 이제는 최신 시설을 갖춘 무도실에서 일주일 내내 수련할 수 있는 위치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무도의 학술적인 연구활동을 더 활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는 국제 무도 연구소(International Martial Arts Research Institutes)도 개설하게 되었다. 이 연구소는 모든 무도 특히 태권도를 비롯한 한국 무도의 체계적인 학술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버클리 무도 프로그램에서는 6회에 걸쳐서 2년에 한 번씩 연구논문이 실린 무도 학술지인 모노그래프(Monograph)를 발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1,700명에 달하는 수련생들에게 질 높은 무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태권도는 이들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종목이다. 그래서 일년중

태권도 행사가 제일 많다. 학교와 학교가 모여서 하는 시합, 몇 개의 대학이 모여서 하는 시합, 해마다 하는 서부지역 대학 시합, 유단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버클리 대학 연례 시합등이 있다. 버클리 대학 연례 시합(Annual UC Open Taekwondo Championship)은 금년으로 37 회 시합을 치루었는데, 이 시합은 내가 버클리에 취임한 1969 년도에 30 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자그마한 시합의 수준에서 현재는 700 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미국에서 제일 권위있는 대회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한때는 1,500 여명 이상의 선수가 몰려, 주말만 가지고는 세계 연맹 경기 규칙 (2 분 3 회전이나 2 분 2 회전)대로는 절대로 경기진행이 어렵고 또 100 명 이상의 학생자원 봉사자들의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문제 때문에 700 명으로 한정해서 시합등록시 1 년이상의 수련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법을 선택하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버클리 대학 태권도팀은 지난 31 회 전미대학선수권대회에서 4 번을 제외한 나머지 27 번을 유단자부에서 단체우승을 거두었다. 그 덕분에 나는 4 번이나 전 미국 대학 태권도 코치상을 받게 되는 영광을 얻었다.

버클리 대학은 지금까지 5 회(1978, 1982, 1986, 1992, 2005) 에 걸쳐 전국 대학대회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1970 년도와 1985 년사이에는 버클리 대학이 중심이 되어 전국대학 태권도대회의 모체인 미서부 대학 태권도대회를 (Western Collegiate Taekwondo Championship) 해마다 개최 했으며, 지금도 그 대회는 지속되고 있다. 또 대학 대항시합, 캘리포니아 대학 9 개 캠퍼스 대항 시합등 많은 교내, 학교간 시합을 통해 학생들의 여가선용과 무도교육을 통한 친목, 체력증진, 그리고 정서함양에 최선을 기울였다.

버클리대학 무도 프로그램은 이제 명실공히 미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도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대표적인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구글 씨치 엔진을 열어 “university martial arts”(대학 무도)를 검색하면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무도 프로그램 (University of California Martial Arts Program)이 제일 먼저 나온다. 내가 지난 37 년전에 착안하여 오늘날에 이른 버클리 대학 무도 프로그램은 이 정도로 매우 성공적이고 활동적이며, 꾸준히 성장 발전하는 무도 프로그램이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미국내 어떤 대학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본교 버클리 캠퍼스의 무도 프로그램 (UCMAP)은 내가 설립한 무도 통솔조직이며, 두 가지를 사명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질이 높은 기술체계를 갖춘 무도를 가르치는 한편 철학적, 과학적, 정신적 학술 연구를 버클리

대학교의 지적 자원을 최대 활용하여 무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가능한 한 더 좋은 무도 교육을 학생, 직원 그리고 캠퍼스 주위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무도 (태권도, 유도, 우슈, 카라테, 용무도, 태극권)의 시합 및 시범을 주최하며, 가능한 한 태권도, 유도 등 분야의 우수 선수들을 지역, 전국 및 국제 대회에 참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승급과 승단을 매 학기마다 제공하여 학생들이 무도 교육의 진도를 공정하게 평가해 주며, 계속 발전하고 변해가는 기술, 경기 규정 논문들을 정기적으로 무도 교육 커리큘럼으로 개발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가능한 한 최대의 시설을 제공하여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계속해서 무도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사용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무도 교육에 관계되는 전문분야 (운동 역학, 운동생리학, 체육 심리학, 체육 철학등)의 실력이 있는 교수들로부터 무도교육에 필요한 분야의 자문을 받아 소화시키는 것이다. 학생들, 특히 대학원생들에게 무도 연구를 각자의 전문분야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도록 하며 연구 학술활동을 직접 세미나나 발표를 통해서 지속 개발하는 것이다. 두번째 사명은 미국내 타 대학이나 전국적, 국제적 조직체들과 체계적인 무도의 학술, 인적 교환을 통해서 친선 및 학술교류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목적을 이해하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많은 능력있는 봉사자들을 활용해야 하고, 둘째,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모금활동을 해야 하며, 셋째, 능력있고 대학 환경에 맞는 전문 인력, 즉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지도자들을 찾아내야 한다. 넷째, 버클리 무도 프로그램의 유단자들을 최대한 투입하여 그들이 봉사를 통해 더 배우고 보람을 느끼도록 교육을 해야 하며, 다섯째, 전 프로그램과 관련된 임원들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 자기의 능력과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대학이라는 특수환경을 최대한 선용하여 지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좋은 시설과 무도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실천을 통해 버클리 무도 프로그램은 항상 타 대학보다 앞서가는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무도 프로그램을 창설하여 발전시키기까지 있었던 에피소드를 두어가지만 소개하겠다.

몬태나의 지방 교육대학에서 근무할 때는 나는 그야말로 틀에 박힌, 참으로 무미건조한 교수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버클리로 전근하면서 갑자기 일류대학의 일약 무도 교수로서 유명인사가 된 것이다. 당시 버클리 캠퍼스에는 학생 및 주민들의 크고

작은 데모가 거의 매 주 일어나고 있었는데, 한국 경찰 지도자들이 버클리를 방문하여 데모관리를 배워갈 정도였다. 내가 부임한 1969 년도부터 몇 년 동안은 월남전 반대 데모, 여성권리 신장 데모등으로 캠퍼스가 항상 어수선하였다. 특히 내가 가르치는 태권도, 유도 수업은 1 개월 이상 여학생들이 무도 수업 등록 자유를 요구하며 피켓을 든 데모대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데모대가 모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3 개 텔레비 방송사와 샌프랜시스코 크로니클 신문, 오클랜드의 트리뷴 신문사등의 기자들이 장사진을 이루었으며, 나는 항상 텔레비 카메라에 잡혀서 수업에 들어 가야 했으니, 캠퍼스뿐만 아니라 북가주 지역에 울며 겨자먹기로 유명인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사실 내가 부임하면서 1 년 뒤에는 바로 여학생들도 무도 수업에 등록하여 함께 수업을 받게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도, 여성 과격 단체 회원들은 자신들의 여성운동을 위해서 대중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의 무도 수업을 빌미로 삼은 것이었다.

여담이지만, 버클리 캠퍼스에서 학생과 주민들이 개최한 월남전 반전이나 반정부 데모를 강경 대책으로 맞서 진압에 성공한 당시 레이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공화당 보수파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당공천을 받아 결국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또한 소련과의 강경 대응으로 결국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결국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까지 무너뜨렸으니, 버클리 캠퍼스가 레이건 대통령의 실험실이 아니었던가 싶다.

또 하나는 내가 버클리에 부임하니 일본계 무도 특히 유도와 카라테의 텃세가 심해 나에게서는 여러 방면에서 끊임없는 도전이 들어왔다. 역시 무도는 행동 철학인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많은 도전과 시련을 거쳐야 했다. 특히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클럽활동에는 카라테 사범들이 타 도장선수, 유학생이나 버클리로 가르치러 온 일본 현역 선수들을 흰 띠로 위장시켜 나에게 도전해 오거나, 자기네 수제자들을 버클리 클럽에 투입시켜 나에게 도전해 온 경우도 몇 번 있었다. 또 심지어는 카라테 사범 자신이 직접 도전해 옴으로써 달 밤에 격투가 벌어질 번 한 적도 있었으나 주먹다짐을 피하며 슬기롭게 대처해 도전을 넘길 수가 있었다. 지금도 그 당시 카라테 사범들을 가끔씩 만나곤 한다.

1964 년 뉴욕 세계 박람회 장소에서 있었던 전미 유도 대회에서 내가 입장을 한 경력이 캘리포니아 유도 사회에서 알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계 유도 선생이 30 여년동안 자리잡고 있었던 버클리 대학에 한국계 무도 전문 선생이 자리잡게 된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역경을 거치며 나는 자리를 굳혀 갔다. 이러한 어려움이 사실 더욱 활발하게 지역사회, 전국, 나아가 국제적인 무도 조직 형성에 더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 것 같기도 하다. 마치 레이건 대통령처럼, 나에게도 버클리 캠퍼스에서 배우고 실험하고 느낀 것이 기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70년대 초 버클리 태권도 팀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모습

나는 2006년 7월 30일로 37년만에 나의 청장년기의 정력과 자원봉사 정신으로 보람있는 시간들을 보냈던 버클리 무도 프로그램을 젊음과 패기를 지니고 지난 2-3년 훈련을 통해 잘 준비해 온 안창섭 체육과 교수에게 넘겨 주었다. 나는 남은 여생을 오랫동안 미뤄왔던 연구 및 저서활동을 하며, 2002년도 무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한 국제무도 연구소 (IMARI, International Martial Arts Research Institute)를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 버클리 대학의 태권도 및 타 무도 석좌 교수제 도입

한국의 무도인 태권도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태권도가 정규 학점 과목으로 채택되고, 과외 시간에 클럽활동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그런데 많은 대학교에서 1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태권도 프로그램이 없어져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없다. 사실

버클리 프로그램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프로그램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현직 교수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놓아 두었다가 그 교수가 은퇴할 때 같이 없애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주립대학의 경우 주정부의 예산이 삭감되면 제일 먼저 삭감되는 것이 체육실기 과목등 예체능 과목들이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듯이, 버클리 대학도 내가 처음 채용되었을 때는 체육학과가 있어 박사학위까지 수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체육과가 아닌 교양체육 과목 위주로 그 위상이 격하되었다.

사실 1995년에 나는 조용히 은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다. 개인적으로는 과분한 연금도 받는 좋은 조건이었다. 그 당시에는 일찍 은퇴를 하게 되면 정년나이에 5년을 더하고 근무연한을 또한 5년 가산해서 총 10년 일한 만큼의 개인적인 혜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태권도 및 타 무도 프로그램이 유지 될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그런데 내가 은퇴를 하면 무도 프로그램이 버클리에서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만 했다. 그래서 석좌 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첫번째 부딪힌 문제는 석좌교수제를 만들려면 우선 버클리대학 교학 담당(Provost) 부총장이 주관하고 각 단과 대학장들이 참석하는 학과목 자문 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한다. 버클리 대학은 고도의 각 분야 학문 연구 및 국가와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 할 수 있느냐 하는데 교과목을 까다롭게 선택하게 되어있다. 하물며 석좌교수제는 더욱 까다롭게 다룰 수 밖에 없는 것이 대학에서 영구히 교과 과목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버클리 대학이 태권도와 타 무도를 영구 교과목으로서 교육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나는 솔직히 많은 걱정을 했었으나, 다행히 학장들중에는 나에게 직접 무도를 배운 사람도 있었고 자기 딸들이 나에게 태권도를 배운 학장도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여하간 행운이었다.

두번째 문제는 모금 운동이었다. 처음에는 로스앤젤리스에 있는 문화원을 통해서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국제 문화 교류 재단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프로그램만 도와준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11명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그래서 버클리 대학 화학과의 김성호교수, 정치외교학과의 이홍영교수,



로랜스연구소의 주동일 박사 및 강우정 샌프란시스코 한국일보 사장등이 후원회에 포함되었다. 후원회 임원들과 또 그간 버클리를 방문했던 교환 교수들이 후원하였다. 또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청와대 의무실장이었던 정윤철박사와 문공부 장관이던 주돈식 장관, 그리고 당시 이홍구 국무총리등이 이 일이 성사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결국은 일이 잘 되어서 1995년부터 시작 해서 1999년까지 1 백만불을 기금으로 나누어 받았으며, 석좌 제도 조건중의 하나였던 100 만불 매칭 펀드도 2005년까지 노력하여 만들어 내었다. 나와 당시 체육학과장이던 팀 화이트 (Tim White)박사와 나는 주말과 밤을 가리지 않고 1000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했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나의 공로를 치하하여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였다.

석좌제도를 만들고 나서 돌아보니 참으로 감회가 깊다. 내가 버클리 대학에 처음 왔을 때는 유도를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학교에서 나를 채용한 주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시간이 흘러 그 명맥을 이어갈, 유도가 아닌, 태권도 전공의 교수 한명과 다른 무도를 전공한 강사들이 이 대학에서 미국 최고의 두뇌 집단의 하나인 버클리 학생들에게 태권도와 그 외의 한국 무도는 물론 한국의 얼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버클리 대학교가 존재하는 한 석좌교수 자리가 계속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이다.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것이 내가 이룬 업적중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보람있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버클리 총장 국기원 방문:**  
 석좌제도 도입후  
 국기원을 방문하고  
 버클리 대학의 티엔  
 총장이 김운용  
 총재로부터 명예 단증을  
 받았다.



**제 1 회 석좌 교수 기금 전달식:**  
 댄 모티(Dan Mote Jr.) 부총장이  
 (현 매릴랜드 대학 총장) 엘에이  
 한국 문화원장으로부터 기금을  
 받고 있다. 부총장은 나에게서  
 유도를 배운 사람이기도 하다.

### 국제대학스포츠 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Sports Universitaires) 가입과 그 의미

나는 1970 년도 초부터 나의 활동영역인 대학 태권도 조직안에서 미국대학 코치협회를 만들어 지도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카라테가 벌써부터 대학 태권도를 흡수해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립된 조직을 버클리 대학 중심으로 힘들게 만들어서 시합도 하고, 북가주에 있는 대학들을 초청하여 태권도 심판 강습, 기술 강습, 시범들을 통해 태권도 보급에 앞장서야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미국 대학 유도 연맹에서 일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빠른 시일내에 체계화된 조직을 만들어 1972년에는 전미 대학 태권도 협회(NCTA, National Collegiate Taekwondo Association)를 결성하여 초대 회장으로 전국 대학 태권도 조직에 기틀을 만들었다. 그것이 발판이 되어 1977년에 태권도가 미국 체육회(AAU)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제안으로 통과됐던 세계연맹의 대학분과 위원회가 시작된 1982년부터 2005년까지 나는 매 2년마다 세계 태권도 대학분과 위원장과 그리고 미국 대학 태권도 협회장으로 재임명되어 활약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미 대학 태권도 연맹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국제 태권도 대회는 개최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세계연맹 대학 분과 위원장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대학생들을 위한 세계태권도 대회를 열 것을 건의하고 버클리에서 제 1회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 제안은 한국 대학연맹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들은 첫 대회는 당연히 종주국인 한국에서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하였다. 태권도의 종주국이 한국인만큼 나도 기꺼이 양보하였다. 내가 당긴 불에 많은 사람들이 달아오른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제 1회 대회는 1983년도 12월

8 일에서 12 일까지 한국 대학 태권도연맹 주최로 국민대학에서 이상주 당시 대학 연맹 회장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제 1 회 국제 대학태권도대회는 14 개국이 참가하여 성공적인 첫단추를 끼웠다.

제 2 회 대회는 1986 년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다. 나는 이 대회가 세계 태권도 연맹 대학분과 위원회 위주로 치루는 것 보다 세계 대학 태권도 발전을 위해 국제 대학스포츠연맹의 주관 하에 치뤄지는 것이 대학 태권도의 세계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몇 나라의 대학 태권도 선수들이 모여서 치루는 것 보다는 좀 더 공식적인 대회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인 (FISU, Federacion Internationales des Sports Universitaires, International University Sport Federation) 와 관련 짓기로 마음먹었다. 세계 대학 스포츠 연맹 산하단체인 미국 대학 스포츠 위원회(USCSC, United States Collegiate Sports Council)를 통해,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가입,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이름으로 제 1 회 세계 대학 스포츠 연맹 공인 태권도 대회로 격상하게 되었다. 그 당시 미국 대학 스포츠 위원회의 회장은 띠오 힙 (Theo Heap)이였으며, 사무총장은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워렌 기제 (Warren Gise)로 나의 지인들이었다. 요근래에 알게 된 일이지만,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으로 국제대학스포츠연맹부회장까지 지낸 캐나다의 에드 켄라우 (Ed Zemrau)에 의하면 집행위원회에서 태권도가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가입 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결국 무리없이 안건이 잘 통과되었다고 했다. 이것은 그 동안의 미국대학 스포츠위원회 (USCSC)의 로비활동과 태권도의 새로운 국제적 위상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주관하에 개최된 제 1 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는 버클리 대학에서 주최하고 버클리 무도 프로그램의 총괄하에, 총 21 개국이 참가했으며 김운용총재, 락캄페나 (Rock Campana)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사무총장등 많은 VIP 들이 참석한 성공적인 대회가 되었다. 이 대회를 위해서 나는 많은 준비를 했으며,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로 부터 대회가 아주 성대하게 잘 치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합이 끝난 뒤, 나는 태권도 기술 위원장 (Commissioner)으로 추대 되었으며, 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매 4 년마다 임명되는 태권도 기술위원장으로 오늘 현재까지 지난 20 여년간 그 직책을 맡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2년에 한 번씩 세계 각지를 돌아가면서 세계 대학 스포츠 연맹의 공식 대회로서 태권도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그 가운데 2002년에는 다시 버클리에서 제 7 회 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나는 이 대회를 참가국의 수와 조직면에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세계 대학 대회로 치루려고 많은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불행히도 2001년 뉴욕에서 9월 11일 테러 사건으로 진통을 겪어, 큰 성과는 아니었지만, 다행히 계획대로 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 질 수 있었다. 대회의 규모가 총예산 50 만불이었으며,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지 킬리안 (George Killian)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 빌히블 (Bill Hybl) 세계 태권도 연맹 부총재, 미국 대학 스포츠 연맹 회장, 그 외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집행부 임원들을 대거 초대해서 대학 태권도가 무엇인지 소개 하였다. 이 많은 예산중 상당부분은 그동안 버클리에서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면서 모은 자금과 지역사회 및 한인 단체들의 도움으로 메꾸어졌다. 이 모든 것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봉사자들의 사심없는 봉사정신과 희생정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오래 전 부터 대학생들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유니버시아드’에 태권도를 정식 경기 종목으로 넣어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대학생들의 올림픽인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태권도가 2003년 한국의 대구에서 선택종목으로 채택되게 되었다. 2005년에는 터키의 이즈마에서 다시 선택종목으로 열렸으며, 2007년에는 타일랜드 방콕에서 열릴 예정인 유니버시아드에 선택종목으로 태권도가 계속해서 3회에 걸쳐 치뤄진다.



**1980년대초 버클리 대학 연례 태권도 대회:  
선수들과 사범들 그리고 심판위원들과 함께**

이런 경유를 통해서 2003년부터는 매년 한 번씩 대학생들을 위한 세계 태권도 대회를 치루게 된 것이다. 즉, 홀수년도에는 유니버시아드게임이 열리고 짝수년도에는 세계 대학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 대학 선수권대회는 다른 시합과 달리 각 나라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참가자 뿐만 아니라 개최국가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시합이 있을 때,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대표로 집행위원, 기술 고문, 재정감독 (Financial Commissioner), 및 의료 고문 등 각 한 명씩 참석해야 하는데, 러시아 대회 경우에는 집행위원이 참석하지 않아서 나 혼자서 연설도 하고, 대회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나라의 경우는 정치적 상황이 불안하여 개최지역의 시장이 대회 일자 바로 전에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노력들과 여러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세계 대학선수권 대회가 격년으로 돌아가며 개최되기에 이르렀고, 아직은 이 대회에 참가하는 각 국의 임원들은 몇 나라를 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비로 대회에 참석하고 있어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일은 태권도가 유니버시아드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 현재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에 청원서가 접수 되어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어려움을 딛고서 세계 대학 대회가 잘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중인데 지식인의 모임인 대학 대회 분위기가 다른 세계 태권도 대회와 다를 것도 없이 ‘반한’(Anti-Korean)을 외치는 소리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 온 임원 및 코치들이 시합을 할 때마다 경기장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거듭되어, 태권도 중주국인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격하시키는 일들이 여러번 초래되어 세계 대학 태권도 모임에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거듭되니 무척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유니버시아드 정식종목 채택에 많은 역효과를 드러 내고 있다.

## 미국에서 공식적인 태권도 단체의 결성과정 - 좌절과 재도전 그리고 승리

미국에 온 많은 태권도 1세대들이 태권도를 코리안 카라테로부르고 있던 시절, 1972년에 조성된 미국 체육회 산하 카라테 협회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태권도를 독립된 단체로 만들려고 하던 나의 꿈과 희망의 뒷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무도는 일본의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복합문화권인 미국에 살면서 한국 무도를 가르치며 살고있는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영원히 카라테의 그늘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강박관념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유도가 주도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눈여겨보고, 읽고, 느끼면서, 또 심지어는 미국 유도 시합에서 한국 선수들의 단증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하얀띠를 매고서 출전했던 경험도 나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 당장 태권도를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태권도도 코리안 카라테로 인식이 되고, 카라테의 그늘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했다. 자꾸 시간이 갈수록 이런 나의 생각은 확고해졌다. 그것은 미국에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은 카라테의 위치에 대한 의식 때문이었다.

1970 년도에서 1973 년도 초에는 9 개의 캘리포니아 대학 9 개 캠퍼스 중에 본교 캠퍼스를 제외하고는 태권도를 가르치는 곳도 없었고 태권도 시합도 없었다. 당시 50 년도 말에서 60 년도 말까지 태권도 또는 코리안 카라테가 미동부와 남부에 발을 붙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미서부, 특히 캘리포니아에는 일본, 중국무도가 중국, 일본인들의 미국이민과 동시에 1930 년말부터 이미 미국에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모두 카라테를 가르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제자들을 데리고 대학 대학 시합에 나갈 때에는 카라테 시합에 나가게 되었었다. 그때마다 제자들이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부상당하는 것을 보고 울분을 금할 수 없었다. 태권도와 카라테는 시합규정이 다른데, 주먹 공격을 위주로 하는 카라테와 발차기를 위주로 하는 태권도를 카라테 규칙에 따라 시합하는 것이 무리였던 것이다. 그래서 우선 한국사범들을 단합 시켜 태권도를 하는 선수들끼리 시합을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내의 태권도시합을 조직하기 위한 많은 시도를 했으나 별 진전을 못 보았다. 1970 년에서 1972 년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북가주, 남가주를 오가며 모여 서로 상의하고 토론하고 실천으로 옮기려 했으나, 해마다 치루는 버클리 태권도대회마저도 태권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됐고, 결국,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다른 각도에서 미국 체육회(AAU)에 태권도를 가입시켜야 겠다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자, 나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도가 레슬링협회에 산하조직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레슬링

협회로부터 독립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나는 미국 체육회 몬태나 (Montana) 지부의 유도 분과위원장을 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유도 역사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버클리 대학에 근무하면서, 이곳에서 레슬링과 유도를 가르쳤던 헨리 스톤(Henry Stone)박사가 레슬링 산하에 유도를 가입시켜 중국에는 1954년에 레슬링으로부터 유도를 독립시키는데 주역을 한 것을 알고 있었다. 버클리 체육학과에는 미망인이 된 스톤여사가 나의 버클리 근무 초반기였던 1969-70년도 초에 체육학과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는 스톤 여사와 가까와 지려고 노력하였다. 본래 나는 상당히 무뚝뚝하고 비사교적인 성격인지라, 사람을 잘 사귀는데는 소질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통해 보다 사교적이 되려고 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스톤 여사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스톤 여사도 나의 의도에 동조하여, 스톤박사의 일기장도 보여주며 유도의 독립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유도가 레슬링의 산하단체로서 시작하여 마침내는 레슬링에서 독립된 스포츠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이었다. 나는 이 전례를 본받아서 태권도의 독립을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서류 준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 체육회 및 지방체육회의 중요 인물들을 사귀는데 주력하였다. 이런 차에 몬태나주의 체육회에서 같이 일했던 데이비드 리빈즈(David Revenes)가 미국 체육회의 회장이 된 것은 천우신조였다.

데이비드 리빈즈 회장은 내가 몬태나주에서 유도분과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몬태나주 체육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는 오랜 친분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태권도 독립의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차례 전화와 편지로 설명을 하였다. 그의 도움으로 나는 1973년 10월 미국 체육회의 총회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 회의는 몬태나주의 웨스트 옐로우 스톤 국립공원 (West Yellow Stone National Park)에서 있었다. 버클리에서 거기까지는 943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였다. 도무지 당일에 여행하기에는 무리였다. 그러나 그 먼거리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회의가 바로 절호의 찬스라는 생각에서 회의 참석을 강행했고 그 날의 회의에 참석은 미국태권도 연맹 창설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토요일 아침 8시에 있을 회의를 위해서 나는 금요일 저녁 버클리에서 마지막 수업인 오후 2시 수업을 마치고 길을 떠났다. 당시에는

캘리포니아주와 아이다호주에는 제한 속도가 있었지만, 와이오밍과 몬태나주에는 속도 제한이 없어서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침 8시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에 질주를 하다가 아이다호주에서 속도위반으로 그만 교통 순경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한국의 군 사무소 같은 카운티 사무실에 경찰과 함께 가서 벌금을 내고서야 풀려나와 회의장을 향해서 달릴 수 있었던 해프닝도 있었다. 몬태나주의 웨스트 옐로우 스톤까지 꼬박 15 시간동안 가솔린 넣는 시간과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고는 줄곧 밤을 세워 차를 몰고 갔다. 나는 기적적으로 아침 7시 30분경에 도착하여, 8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나의 발표로 인해 태권도 독립에 관한 건은 1974년 5월에 있을 집행위원회 회의와 그 해 10월에 있을 전국 대의원 총회에서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다.

그때 당시 몇몇 태권도 사범들이 카라테 협회 임원으로 총회에 직접 참석하고 있었던 것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

태권도가 카라테 산하위원회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종목으로 인준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나는 다음의 세 가지의 요소로 나누어 변론하였다. 첫째는 나의 설문조사 결과 내용의 핵심 중 하나로 그 당시 미국에서는 ‘코리안 카라테’로 알려진 한국의 태권도를 수련하는 대학교가 일본의 카라테를 수련하는 대학교보다 많다는 것이었다. 당시의 유일한 무도 잡지였던 ‘블랙 벨트 매거진 (Black Belt Magazine)도’<sup>1</sup> 이 자료를 보증하고 있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코리안 태권도 41%, 일본 카라테 27%, 오키나와 카라테 28%, 그리고 중국 쿵푸 4%로 태권도가 다른 무도보다 훨씬 대중화되어있음을 보여주었다. 두번째는 카라테 협회는 세계 카라테 연합 WUKO (World Union of Karate Organization)이고, 태권도 협회는 세계 태권도 연맹 WTF (World Taekwondo Federation)으로 세계 조직이 다르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시합을 운영하는 규칙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숫자와 사실에 근거한 나의 논증은 이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또한 나는 현재의 카라테 위원회를 대체할 K.T.K (카라테, 태권도, 쿵푸의 첫 글자)라고 하는 미국 체육회 산하 종합 스포츠 위원회를 잠정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물론 성공적이었던 레슬링과 유도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런

---

<sup>1</sup> Black Belt Magazine: Black Belt Year Book 1973



절차를 거쳐서 일단 총회의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때부터가 시작이었다. 더우기 많은 한국계 태권도 사범들이 카라테 위원회에 한국계 (Korean Karate)를 대표하여 활동이 시작된 뒤였다. 그 동안 나는 여러 스포츠 단체와 대학에서 일하면서 스포츠 조직에서 회장의 영향력이 상당하며,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대의원들이 특정종목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때는 주로 회장단과 집행위원들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회장인 데이비드 리빈즈와 격기 담당관인 짐 스티븐스에게 한국 방문을 추진해서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자, 나는 곧바로 대한 체육회 회장인 김택수씨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는 당시 김운용씨가 대한 체육회 부회장이자 대한 태권도 협회 회장이므로 그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다. 물론 제 1 회 세계 대회를 통해 알고 있는 김총재에게 한국과의 시간차에 익숙치 않은 관계로 한국시간으로 새벽에 전화를 하게 되었다. 나는 다짜고짜 태권도를 미국 체육회에 가입시키기 위해 미국체육 회장과 같이 한국에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김총재는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을 텐데도 상황 판단을 빨리하는 것 같았다.

“오십시요. 내가 경비를 다 부담하겠으니 신경쓰지 말고 오십시요. 민교수께서 수고를 좀 해 주십시요.”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김총재가 굉장히 상황판단이 빠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데이비드 리빈즈 회장과 짐 스티븐스씨 그리고 나는 1974년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동안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것은 태권도를 위한 방문이었지만, 사실상 한국과 미국이 최초로 정상 스포츠 교류를 하게 된 미국 체육회장의 한국방문으로 알고 있다. 이런 계기로 태권도는 물론이고 다른 스포츠도 교류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총재는 우리가 한국에 있는 동안, 김종필 총리, 장기영 국제 올림픽 위원, 김택수 대한 체육회 회장, 민관식 문교부 장관등과 회담을 가지도록 주선하였다. 또한 국기원 방문을 통해서 지도자 교육과 어린이들의 시범 장면을 보여주며 태권도의 홍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방문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미국 체육회 회장은 한국측의 배려에 깊이 감사했으며, 이번 여행이 태권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김총재 역시 그 기회를 통해서 태권도의 세계화와 스포츠 외교를 넓힐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김총재는 미국 체육회 회장의 내한으로 총리나 장관들과의

회담에 같이 참여를 하였으며, 미국의 스포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스포츠계에서의 활동이 활발해 질 수 있었다. 나는 김총재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미국 스포츠 인사들을 소개해 주었으며, 김총재는 그들을 잘 파악하여 대처하였다. 이 방문을 통해서 대한 체육회는 미국의 스포츠 코치들과 행정요원들을 초대하여 다방면의 아마추어 스포츠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방법및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한 미국 체육회가 요구하는대로 태권도의 기술적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미국 체육회는 한국 체육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다. 우리가 미국에 돌아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리빈즈회장은 한국의 김택수 회장으로부터 미국 체육회가 미국의 태권도를 조직하고 관장하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받게 되었다.



**1974년 미국 체육회장단 첫방한:**  
 맨 왼쪽이 저자, 그 옆이 김운용 총재, 왼쪽에서 세번째가 데이비드 리빈즈회장, 그 옆이 김택수 대한 체육회장, 그 옆이 짐 스티븐스씨

드디어 1974년 5월 4일 미국 체육회 집행위원회가 인디애나주 (Indianapolis, Indiana)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렸다. 이 때 태권도가 카라테에서 독립된 종목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투표가 있었다. 결과는 28 대 17 로 승리였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는 태권도를 미국 체육회의 공식적인 종목으로서 허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료로서 태권도의 경기규칙, 태권도의 기술적인 측면, 카라테와 태권도의 차이점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나는 ‘미국 체육회의 새로운 스포츠로서 태권도의 자격 조건을 보고서를 통해 태권도와 카라테의 주요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태권도는 발기술이 70%이며, 몸을 자주 돌리면서 점프를 하는 움직임이 많다. 경기는 2 분 3 회전이며 보호장비를 사용한다. 손을 사용한 머리공격은 금지되어있다. 반면에 카라테는 손기술이 70%이고 돌거나 점프를 하는 동작이 거의 없으며, 다리와 팔의 움직임은 직선적이다. 경기는 1 회전이고, 심판이 득점을 선언하려고 하면 선수들의 동작을 멈추게 한다. 또한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며, 손을 사용한 머리공격이 허용된다.”

미국 체육회 임시 태권도 위원회 모임을 제 87 회 미체육회 총회 기간중 첫날에 쇼어햄 어메리카나 (Shoreham Americana) 호텔에서 모였다. 여기서 협회 정관과 다음 해에 있을 제 2 회 세계 대회등의 시합에 관해서 토론하였다. 예일대의 황인수교수가 제 1 회 미국 체육회 태권도 시합을 예일대(Yale University)에서 할 것을 제안했다. 회의가 끝날 즈음에 임원이 선출되었다. 나는 맡고 있는 일이 많았으므로, 회장직을 수락하는 것을 꺼렸으나, 새 조직을 끌고나가는 데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된다는 주위 사람들의 생각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자리를 수락하였다. 그리고 미네소타에서 온 현준선 (Jay Hyun)씨가 부회장으로, 오하이오주에서 온 척 포트닉 (Chuck Portnick)씨는 서기겸 재무로 선출이 되었다. 또한, 2년 후에는 현준선 부회장이 회장을 맡는다는 조건으로 내가 회장을 맡은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1974 년 10 월 총회에서 태권도 독립 종목 채택 안건이 미국 체육회에 상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천신만고끝에 상정된 안건이 총회의 대의원들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카라테 지도자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안건은 부결되게 되었다. 나에게서는 2년간의 피나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그 동안 많은

준비를 했었다. 버클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끝나면 나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자료조사와 연구를 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 태권도가 카라테로부터 독립을 해야하는 이유를 조목 조목 설명하느라 혼신을 다했다. 게다가, 미국 체육회 회장을 한국에까지 초청하여 태권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다른 유도 지도자들과 태권도 사범들과 함께 로비활동에 앞장서야 했었다.

지난 74년 5월에 있었던 집행위원회의에서는 잘 통과가 되었다. 그러나 6박 7일동안 워싱턴 디씨의 소라햄 어메리카나 호텔에서 열린 전미 대의원총회에서 카라테 사범들의 강력한 반대로 한 순간에 그렇게 좌절이 될 줄이야! 절망감과 안타까움에 견딜 수 없었다. 주위의 모든 태권도 사범들의 수수방관하던 모습속에서 나는 실패한데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한층 더 느꼈다. 카라테 협회 회장인 애킨스(Atkins)를 비롯한 카라테 사범들은 쾌재를 불렀다. 분명 그들의 승리였다.

나는 리빈즈 회장에게 다가가서 실망에 찬 얼굴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고 물어보았다. 그는 내게 웃는 얼굴로 좀 기다려 보라고 했다. 아직 회의가 이틀 남아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그는 조용히 레슬링 협의회 의원들과 유도 협의회 대의원들 서로 친분이 있는 대의원들을 찾아 다니면서 태권도를 독립된 단체로 만들어 달라고 캠페인을 하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리빈즈회장의 충고대로 나를 비롯한, 미국 체육회 유도위원회 회장인 김위생씨, 예일 대학의 황인수교수 등 유도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밤새도록 유도, 레슬링에 관련된 대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하였다.

아무튼, 그 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되게 느껴지던 총회의 폐막 하루 전날, 미국 체육회 집행위원회는 우리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건을 다시 조정하여 제안하도록 조치를 하였다. 카라테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포함한 많은 반대파 대의원들은 태권도와 다른 무도가 미국체육회에서 하나의 조직산하에서 하나의 공통된 규칙을 가지고 경기하기를 바라는 반면,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무도의 다양성을 인식하여, 각 무도 단체가 자신의 고유한 경기 규칙을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들 모두는 태권도가 미국 체육회에 인준을 받는 것에 찬성하였다.

드디어 총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그 날은 주말이기도 해서, 태권도의 독립안건이 부결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카라테 사범들 중 많은 사람들이 벌써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 남아있던 카라테 지도자들의 반대가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앞으로 미국 체육회가 만들게 될 모든 무도협의회 구조에 완전히 동조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류에 내가 싸인을 해서 체육회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제안은 814 대 149 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총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드디어 태권도는 미국 체육회의 독립된 정식종목으로서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 때 일을 생각하면 데이빗 리빈즈 회장에게 충심으로 감사한다.

지금쯤 웃어 넘길 수 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연맹의 김운용총재와 이종우 사무총장 (당시)의 연락을 받고 30 여명이 넘는 재미 지도자급 태권도 사범들이 미전역에서 모여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인 임시 태권도 위원회 모임을 다른 미국체육회 산하 스포츠들과 같이 가졌다. 그러데 다음날 태권도 독립 스포츠안건이 부결된 것을 지켜본 태권도 사범들은 거의 모두 골프를 치러 나가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재투표 캠페인에는 단 한 명도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그후 10 여년이상 골프 클럽을 잡지 않을 정도로 그들에게 실망이 컸었다.

이 날의 승리는 세계에서 최강국인 미국의 체육회가 태권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뜻이 깊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해바라기 도장들이 태권도를 코리안 카라테로 명칭하던 데에서 이제는 일본의 카라테 도장도 재패니즈 태권도 (Japanese Taekwondo)로 명칭할 정도로 미국사에서 태권도의 위상이 상승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태권도가 미국 체육회에 공인 스포츠로 인정 받은지 두 달이 지난 후,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근처의 홀리데이 인에서 모인 태권도 위원회 임원들은 미국에서 태권도를 홍보하기 위한 막중한 임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은 실망스럽게도 오하이오주에 안경원관장을 위시해 고인이 된 김 영치관장, 최준표관장, 정영남관장등 네명과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간 강명규관장과 나뿐이었다. 아뭏튼 이 모임에서 제 1 회 미국 체육회 전국 태권도 대회를 열기 전에 전국적인 시범 대회를 열고 하부 위원회장들을 뽑으며 제 2 회 세계대회에 선수를 파견하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역사적인 새로운 단체 결성을 위해서 태권도 위원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 카라테 위원회는 태권도가 미국체육회에 인준되기 전에 태권도와 쿵푸를 자신들의 산하 단체 소속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 체육회가 태권도를 독립시킴으로써 이들

협회장들의 계획은 좌절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카라테협회의 케일러 에킨스씨는 미국의 무도를 미국체육회의 하나의 산하조직으로 묶으려고 노력을 하였다. 태권도가 미국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기위해서 나는 미국체육회내에 하나의 산하조직으로 무도를 묶으려는 것에 동조를 했지만, 이 생각이 마음에 썩 드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제 방금 만든 단체를 운영하는 것도 벅찬데 다시 새로운 단체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개별 무도 단체들이 더 성장할 때까지 이 산하조직의 형성을 미루는 것을 제안하였다. 리빈즈 회장은 나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1975년 2월에 여성 카라테 위원장에서 선출된 앤 스몰 (Ann Small)과 함께 에킨스씨는 4월에 있을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하나의 무도 산하조직을 만드는 것을 안건으로 공식적으로 상정하였으나 태권도 위원회의 반대로 부결 되었다.

김운용총재는 미국 태권도 협회가 형성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치하하고, 내가 제안한 팬암태권도 연맹(Pan American Taekwondo Union) 창설에 대한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었고, 세계 대회의 미국 개최에도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나는 리빈즈회장을 세계 연맹 집행위원으로 추대하고, 미국체육회 태권도 위원회는 미국의 태권도를 대표하는 국가단체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초작업이 완성되었다.

미국 태권도 협회가 생긴지 6개월만에 제 1회 전미 태권도 대회겸 제 2회 세계 태권도 대회 선발전을 예정대로 예일대학에서 1975년 4월 24일에서 26일까지 열었다. 대회장은 예일대학의 황인수교수였다. 시합은 경제적으로는 많은 손해를 보았으나, 전미국의 첫 공식 태권도 대회라는 점에서 나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하며 미국 체육회 커네티컷주 회장인 윌리엄 헐쉬가 말했듯이 “예술적 작품”이었다.

## 제 1회, 2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미국 체육회 태권도 위원회가 생기기 전인 1973년에 열린 제 1회 세계대회는 미국팀의 참가에 관한 일화가 참 많은 대회였다. 우선 미국에 전국적인 공인 태권도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미 서부에 있는 무덕관 사범들을 중심 조직으로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는 고 안예모관장과 새크라멘토에 자리잡은 강명규관장과 내가 중심이 되어 조직이 되었다. 안예모관장이 달라스의 코카 콜라 지사의 스폰서로 전국예선을 거쳐 10명의 선수들을

선발하였다. 안예모관장을 단장으로 내가 감독으로 강명규관장을 코치로 선발하는등 제법 큰 규모를 갖춘 팀조직이었으나, 대회가 있는 서울을 가기 위해 로스엔젤리스 비행장 근처 호텔에 모였으나 안단장이 코카콜라에서 여행경비를 계획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클라호마 (Oklahoma)주의 잭황관장 (Jack Hwang)을 급히 단장으로 추대하여 그가 낸 경비와 또 우리 임원들이 신용카드로 낸 경비로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래안예모단장, 민경호감독, 강명규총코치로 계획했던 임원구성이 단장의 교체로 좀 허술하게 되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간 사범중에는 얼떨결에 덩달아 따라온 사범들도 있었다. 서울에 도착하여 나는 우선으로 주한 미국대사관 필립 하빔(Philip Habib)대사를 방문 하였다. 하빔대사는 버클리 출신으로 출발전에 나와 서신연락이 있었다. 서울 세종로의 미대사관에 도착해 보니 미국에서 온 다른 팀 역시 세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와 있었는데, 그는 청도관계의 에드 셀 (Ed Sell)과 그의 한국계 부인 형숙 셀과 아들 둘을 포함한 6 명의 선수들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팀은 동부, 중부, 서부팀으로 분리되어 3 개팀이 참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하간, 미국팀은 성적이 좋아 한국팀 다음으로 우수한 결과를 내어 한국언론의 각광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미국을 대표하여 세계연맹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김운용 대한 태권도 협회장을 세계태권도연맹 (WTF)의 총재로 선출함은 물론, 세계연맹회칙을 통과시키는 역사적인 현장에 미국의 태권도를 대표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다.



**1973년 제 1 회 세계 대회시 주미대사관 방문:**  
 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필립 하빔 주한 미대사, 여섯번째가 잭 황, 그 옆이 저자, 그 옆이 강명규관장, 왼쪽에서 세번째가 에드 셀씨.

부회장인 현준선씨를 코치로 제 2 회 세계대회가 한국 국기원에서 1975년 8월 28 일까지 있었다. 미국팀은 리빈즈씨가 단장, 나는 팀매니저로 8 명의 선수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이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서 모든 경비를 외부의 보조금 없이 선수와 임원들이 자비로 부담했다. 제 1 회 대회에서는 은메달 1 개, 동메달 3 개로 종합 2 위까지 했었지만, 시합의 규칙이 다르고 새로운 경기이기 때문에 기술 차이가 있어 미국팀은 뉴저지주의 저지씨티에서 온 제랄드 로빈스 (Gerald Robbins) 선수가 밴텀급에서 동메달을 따는데 그쳐, 참가한 30 개국중 전체 6 위에 만족하여야 했다. 하지만, 나는 이 행사가 미국 태권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이 대회를 통해서 미국 팀은 세계 태권도 사회에서 미체육회 공인 태권도 협회로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차기 제 3 회 세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총회에서 위임받았다.



**제 2 회 세계 대회 입장식:**  
국기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현준선 코치, 그 뒤가 저자



**제 2 회 세계 대회 미국 대표팀:**  
국기원에서 촬영, 꽃다발을 건 사람이  
리빈즈 회장

제 1 회 미체육회 태권도 위원회에서 선출된 미네소타의 현준선(Jay Hyun)부회장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온즈에서 열린 제 88 회 미체육회총회 이전에 사표를 보내왔다. 이유인즉 제 2 회 세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고 돌아오니 많은 태권도 수련생이 줄어든데다, 미체육회 태권도 위원회를 위해 더 이상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 또한 회장으로로서 더 많은 시간과 경비를 쓰면서 일했기 때문에 큰 실망에 휩싸였다.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덕분에 나는 할 수 없이 2 년으로 마치려했던 회장자리를 2 년 더 연장하였으며, 부회장을 2 명으로 늘려 일을 수습하였다. 그래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어 나와 비슷한 처지인 하워드 대학의 양동자 교수와 미시간 대학의 정화 강사를 부회장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았다.





**1975년도 제 2 회 세계대회:**  
 왼쪽: 우리를 환대하고 있는 이종우 사무총장  
 가운데: 현준선 미국팀 코치  
 오른쪽: 저자



**1980년 초 시카고 전국 태권도 대회:**  
 오른쪽 끝부터: 남태희관장, 고  
 김기황관장, 고 차수영관장, 저자

### 그 후의 태권도의 달라진 위상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1975년 미국의 태권도는 그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발전과 안정의 궤도에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한국 사범들에게 카라테가 아닌 태권도 간판을 도장에 부쳐달라고 전화도 하고 편지도 써야했다.

그 해 12월에는 제 88회 미국 체육회 총회가 뉴 올린스에서 있었다. 이 회의에서 태권도 위원회는 의료 위원회, 대학 위원회, 정관 및 부칙위원회, 경기 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둔 큰 위원회가 되었다. 6시간에 걸쳐서 보고 및 토론을 할 정도로 조직이 커진 것이다. 여기서 제 2회 세계 대회에서 가졌던 세계 연맹 총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나는 승급 및 승단, 경기 규칙, 심판 자격증에 대해서 토론했으며, 무도 산하 조직의 형성에 반대하는 위원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태권도가 대중화됨에 따라서 여성들의 참여도 높아졌다. 블랙 벨트 잡지사에서는 “무술을 하는 여성(Fighting Women)”이라는 칼럼란에 글을 쓸 사람을 구해 달라고 나에게 부탁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나는 태권도와 유도를 수련하고 있는 필리스 하퍼(Phyllis Harper)를 추천해 주었다. 그녀는 여성 태권도 분과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기도 했다.

그녀의 뒤를 김경애 사범이 이었다. 1978년 워싱턴 디.씨의 하워드 대학에서 열린 제 4회 미국 체육회 태권도 대회에 최초로 여자선수들도 남자 선수들과 같이 시합을 하게 되었다.

1976년은 태권도 행사로 꽉 짜여진 한 해였다. 3월에는 버클리 대학 하몬 체육관에서 미서부지역 대학 태권도 대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달에 제 2회 미국 체육회 전미 태권도 대회를 미주리주 캔사스 시티 (Kansas City)에 있는 펜 밸리 전문 대학 (Pen Valley Junior College)에서 개최하였다. 그리고 곧 루지애나주의 티보도에 있는 니콜라스 주립대학에서 제 1회 전국 대학 연맹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6월에는 버클리 대학에서 제 7회 버클리 대학 연례 태권도 대회를 성대히 치루었다.

### 미국 체육회 산하로부터 독립하는 과정 (미국 아마추어 스포츠 조직의 변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전미 대학 체육회와 전미 대학 대항 체육회 (NCAA & NAIA)간의 힘겨루기와 알력은 종착역인 미 국회로 번져, 결국은 1978년에 국회에서 미국 아마추어 스포츠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그 결의안에 의해 미체육회 (AAU)는 미국 아마추어 스포츠의 총책을 미국 올림픽 위원회 (USOC)로 넘겨야만 했다. 그리고 미국 올림픽 위원회는 각 스포츠를 독립조직 (National Governing Body)으로 그 체제를 21 세기의 개방적인 경쟁조직으로 재편성하게 되었다.

태권도 역시 미체육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는 왔으나, 이제 미체육회 태권도로 태어난지 4년밖에 되지 않은데다가 한국의 무도인 태권도를 미국의 스포츠 조직에 접목시켜야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우선 1980년도에 미국 체육회 태권도 위원회 (AAU Taekwondo Committee)에서 미국 체육회 태권도 연맹 (National AAU Taekwondo Union)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84년도에 가서야 AAU를 삭제한 USTU (United States Taekwondo Union)라는 독립된 조직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유에스 에이 태권도 (USA Taekwondo)로 바뀐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바쁘게 활동하는 가운데서도 태권도 위원회에는 아직도 완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승급, 승단 심사 제도였다. 세계 태권도 기술의 총본산인 국기원은

미국내의 여러 그룹의 이해관계 때문에 승단문제에 대한 제도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 협회에는 승급 및 승단에 대한 규칙이 없었다. 또한 국기원이 도움이 없이 미국에서 태권도의 기술적 측면을 결정하는 일을 떠맡게 되면 기술적인 세계 통합 기구로서의 국기원의 위상이 걱정되었다. 그래서 나는 김운용 총재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 김총재는 자신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지만, 국기원의 승단제도를 미국 체육회 태권도 위원회를 통해 수용한다고 답신을 하였다.

그 해 봄, 나를 비롯한 미국 체육회 태권도 위원회 집행위원들은 아마추어 스포츠를 조직하고 보급하는 미국 체육회의 목표가 태권도 지도자들이 태권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특히 태권도 위원회는 미국체육회가 승급, 승단심사를 치루는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체육회의 태권도 위원회의 산하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것은 똑같은 조직의 집행위원들과 회원으로 구성된 다른 조직이었지만, 미국체육회의 엄격한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이었다. 나는 이 조직을 미국 태권도 연맹 (United States Taekwondo Federation)이라고 명명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태권도 연맹은 국기원이 세계 태권도 연맹의 기술적 지원을 하듯이 처음에는 미국 체육회 태권도 위원회의 기술적 자문기관으로 인식되었다. 미국 태권도 연맹 (USTF)의 창설 모임은 이 해 3월에 캔사스 시티에서 있었다. 이 도시에서는 제 2회 미국 체육회 태권도 대회가 있었다. 미국 체육회의 대표들은 이 모임과 조직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을 하였다.

나는 미국 태권도 연맹(USTF)의 배경의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사실상, 다른 조직들은 미국 체육회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자신들 조직의 행정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미국 태권도 연맹의 유일한 목표는 공식적인 승급 및 승단 절차가 미국 체육회 규정에 도입되기 전까지 미국 체육회의 기술적 일관성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나는 또한 미국 체육회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발전시킬까 봐 미국 태권도 연맹이 미국 체육회의 정책과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해체할 것이라고 맹세하기도 하였다. 이 주제는 10월로 예정된 미국 체육회 연례 총회에서 크게 다루어 질 수도 있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 사실 승단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당시 미국체육회의 유도위원회는 당시 미국유도연맹 (US Judo Federation)과 체결을 맺어 단증문제와 무도 관계의 유도행정을

미국유도연맹에 맡기고 있었다. 미국유도연맹은 일본 강도관의 지부역할을 하듯이 미국 태권도연맹은 국기원의 지부 역할을 하도록 조직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더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무도로서의 태권도 보급의 세계화가 경기태권도의 가치이래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보급 발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서양문화권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계화된 올림픽에 태권도의 경기화를 통해 태권도를 보다 빠른 속도로 세계 속에 보급 발전시키는 것에 중점적인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경기 태권도인구는 몇 퍼센트 안되는 소수인 반면, 90% 이상인 나머지 태권도 수련생들은 인간교육의 일환으로서 무도를 수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태권도 진흥재단의 설립과 그 역할에 많은 희망을 갖고 있다.

## 미국 태권도 연맹의 변화

미국 체육회 태권도 위원회는 1976 여름에 많은 한국과 연관된 여러 행정조직들과 개인 조직을 통합하기 위해 여러가지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6 월에는 버클리대학 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괄적인 태권도 기술 및 심판규정에 관한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 세미나는 기술 수련뿐만 아니라, 교육및 훈련 방법, 경기 규칙과 운용, 심판, 행정적인 사항들, 승급및 승단 요구사항등을 다루었다.

10 월의 미국 체육회 총회에 앞서서 승급, 승단에 필요한 각 띠별 자격 조건이 우리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미국 태권도 연맹은 일맥상통하는 조직의 목적을 외부사람들에게 확고하게 알리지도 못했으며, 세계 태권도 연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침도 못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전국에 퍼져있는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도록 종용하였다.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질문들에 답을 찾지 못하면 위원회의 존립목적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었다.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급증, 단증을 발부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미국 체육회가 이를 반대한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또한 만일 다른 어떤 태권도 단체가 미국체육회에 등록하고자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이를 제재, 감독할 수 있겠는가? 장시간의 토론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승급, 승단제도의 마련에는 실패하였다.

그해 11 월 미국 체육회 사무총장인 올란 캐슬(Ollan Cassell) 미국 태권도 연맹(USTF)에 대하여 당혹함을 표현하였다. 그것은 내가 시작하고 편집장으로 있던 잡지인 어메리칸 태권도 (American Taekwondo)라는 잡지에 USTF 연맹의 활동상과 미국 체육회 태권도에 관한 소식이 실려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미국 체육회 사무총장인 올란 캐슬이 미국 태권도 연맹의 본질에 대해서 묻는 편지를 나에게 보내 왔다. “연맹의 조직구성과 목표는 무엇인가?” “연맹은 미국 체육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하는 질문등이 주된 것이었다. 한 달 후에 캐슬씨는 다른 편지를 보내서 미국 체육회와 미국 태권도 연맹관계가 서로의 이익에 상충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는 내가 태권도 연맹으로부터 사직하고, 미국 체육회의 중재자를 통해서 두 단체가 분리될 것을 충고하였다. 그러나 나는 미국 체육회의 거대한 조직에 비하면, 미국 태권도 연맹은 조그마한 부속 조직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재차 USTF 의 취지는 태권도 승급심사의 그 기술적인 면의 기본적인 체계의 확립일 뿐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하여 그를 이해 시켰다. 물론 유도의 경우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로써 미국 체육회와 연맹간의 갈등은 일단 해소 되었고 USTF 는 등록절차와 급, 단증제도에 관한 체제를 마침내 수립하여 공식화 할 수 있게 되기에 이르렀다.

### 제 3 회 전미대회와 제 1 회 북미주 태권도 대회

1977 년은 태권도 선수들에게 있어서 아주 바쁜 한 해였다. 시합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시합 규정의 불규칙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시정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체육회 태권도 위원회는 버클리 대학에서 제 1 회 전국 심판 강습회를 시작하고 지원하였다. 이 강습회는 미국 체육회의 정관, 심판과 부심의 책임, 그리고 심판 신호, 용어 및 심판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다룬 것이었다. 태권도 위원회는 지역, 전국및 국제 자격의 53 명의 심판 자격증을 발부하였다.

강습회 다음 날, 두 개의 시합이 버클리 대학에서 있었다. 3 월 5 일과 6 일, 이틀에 걸쳐서 전미 태권도 대회와 북미 태권도 대회가 있었다. 첫날에는 520 명의 선수들이 제 3 회 미국 체육회 태권도 대회에 참석하였다. 모두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전국에서

물려들었다. 이 대회 승자가 다음 해 시카고에서 있을 세계 대회에서, 각국에서 온 가장 뛰어난 선수들과 겨루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였다. 선수들은 첫째 날의 시합이 끝나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다음 날 멕시코 팀과 제 1 회 북미 태권도 대회(멕시코,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참가)에서 최종경기를 치루게 되었다. 이 때도 미국 태권도 선수들은 제 2 회 세계 대회때와 비슷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보호장비에 익숙하지 못한 점, 시합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길게 느껴진다는 점, 손 사용에 관한 규정등이 익숙치 않은 점이였다. 이날 많은 선수들이 전국 대회에서 부상으로 불참했기 때문에 미국 팀은 적은 수로 멕시코 팀을 맞아야했다. 우리 팀은 경험이 적고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많은 멕시코팀을 대항하기에는 힘이 들었다. 열심히 싸웠으나, 멕시코 팀이 8 개 매치중 5 개를 이겨 우승팀이 되었다.

### 제 3 회 세계 태권도 대회 (1977 년)

1978 년에 있을 제 1 회 월드 게임과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 3 회 세계대회가 1977 년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 태권도 위원회는 1976 년 봄에 공문을 받게 되었다. 갑자기 세계 대회 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나는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대회 후보 도시로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및 피닉스등 개최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주최하는 도시로부터 참여하고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1981 년 산타클라라 (Santa Clara)에서 있을 월드 게임의 디렉터이고 세계 대회 조직에 경험이 많은 할 업링거 (Hal Uplinger)씨가 많은 수고를 하였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새로 형성된 미국 태권도 연맹에 가입하고 입회비를 보내도록 전국적으로 장려하였다. 7 월 말쯤에 가서야 시카고가 제 3 회 세계 태권도 장소로 결정되었으며, 오랫동안 나의 지인인, 유도인이면서 무도 용품 회사를 차린 신경선씨가 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대회는 9 월 15-17 일로 예정되었다. 일 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아 있었다. 이 대회는 미국 태권도의 통일과 발전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한다는데 큰 뜻이 담겨져 있었다. 그래서 김운용총재와 같이 미국전역을 돌며 태권도 사범들을 만나 그들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성과는 별로

좋지 않아 심지어 대회가 열리는 시카고에서도 태권도 사범들로부터도 큰 협조를 못 받았다.



**1977년, 시카고에서  
열린 제 3회 세계  
태권도 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이  
대회의 핵심인물들:  
왼쪽에서 두번째(저자,  
당시 미국 태권도 협회  
회장), 단 마로(부  
대회장, 후에 팬암  
회장이 됨),  
김운용총재, 신경선  
대회장, 조수아  
헨슨(당시 미국 체육회  
회장)

국내대회와 북미주 대회를 끝내자, 미국 체육회 태권도 위원회는 세계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미국 체육회의 부회장인 조슈아 헨슨 (Josiah Henson)씨와 미국 올림픽 위원회의 부회장인 존 켈리 (John Kelly Jr.) 부회장이 국기원을 방문하여 태권도의 올림픽 운동에 큰 힘이 실렸다. 그들은 세계 대회 준비가 잘 되고 있으며, 48개국으로부터 관심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총재는 이들에게 명예 단증을 수여했다.

한편, 미국 여러 지역에서 심판 강습회가있었다. 전국 대회 우승자들은 9월 5일부터 최단규 코치의 지도아래 양동자 부회장과 김홍강 심판이 국제심판훈련을 시작하였다. 나는 4월 한 달 동안 대만, 한국, 일본, 그리고 홍콩을 방문하여 태권도 지도자들을 만나서 세계 대회에 참석해줄 것을 종용하고, 태권도 교환 프로그램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9월 9일에는 3회 세계대회가 열리는 시카고에서 사범, 심판 그리고 행정요원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심판 교육, 기술위원 회의, 집행위원 회의, 대의원 회의 등을 했으며 세계 연맹의 세번째 총회도 열렸다. 드디어, 9월 15일부터 3일간 세계대회가 열전을 벌렸으며, 미국팀은 팀 구성원들이 나이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미국 태권도의

조직과 발전을 증명하듯 종합 3 위를 차지하였다. 개인 수상자는 페더급의 그렉 피어스 (Greg Fears)가 은메달, 미들급의 제임스 커비 (James Kirby)가 은메달, 라이트급의 어니 레이에스 (Ernie Reyes)와 헤비급의 존 할러웨이 (John Halloway)가 동메달을 땀다.



**1977년 미국, 시카고 제 3 회 세계대회:**  
시상식이 끝난후 한국팀과 미국팀이 같이 기념 촬영

### 태권도 위원회의 계속된 발전

1977년 미국 체육회 정기 총회에서, 태권도 위원회가 급증 및 단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약속대로, 위원회는 미국 태권도 연맹을 해체하고, 미국 체육회 승급 부위원회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들은 미국 태권도 연맹의 자치와 자유를 미국 체육회에 넘겨주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나는 체육회에 태권도 승급 및 승단을 통해서 걷게 될 자금을 관리할 구좌 및 예산을 독립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으며, 위원회의 이름을 미국 체육회 태권도 연맹(National AAU Taekwondo Federation)으로 바꾸자고 제안하였다. 비록 이 제안은 거부되었지만, 태권도 위원회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내 임기의 마지막 해인 1978 년은 태권도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한 해였다. 위원회는 시합등의 일을 제외하고도 나의 주관으로 계간 태권도 잡지 뿐만 아니라 미국 태권도 교본을 발간하게 되었다. 청소년 태권도 프로그램이 생겼으며, 청소년 태권도 대회가 9 월로 예정되었다. 3 회 여름 캠프가 엘로우 스톤에서 열렸다. 팬암태권도 연맹도 생기게 되었다. 북미주 태권도 연맹(North America Taekwondo Union)의 총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내가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다. 그 동안 태권도 옹호자인 조엘 페렐( Joel Ferrell)이 미국 체육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어 김충재를 만나러 한국을 방문하였다.

### 미국 올림픽 위원회에 가입

미국 체육회 태권도 위원회는 미국 카라테 위원회가 분열되고 위축되는 것과는 반대로 고도로 조직화되고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스포츠 협회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지도부는 당연히 다음 단계로서 미국올림픽 위원회와 직접적인 결속을 추구하게 되었다. 태권도 위원회가 미국 체육회를 통해서 미국 올림픽 위원회에 가맹되어 있었지만, 태권도 지도자들은 미국 체육회라는 방대한 관료적 체계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집행 위원회는 태권도 위원회가 미국 올림픽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나는 미국 올림픽 위원회에 가입신청서와 미국 태권도 연맹의 정관을 보내게 되었다.

이 신청서는 마침 1978 년에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아마추어 스포츠 법령에 큰 힘을 입었다. 그 내용은 모든 스포츠 단체는 독립적으로 협회를 조직하고, 자신의 고유한 기술 전수 과정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미국 올림픽 위원회가 직접 관여한다는 것이었다. 미국 체육회 태권도 위원회의 신청서는 이 새로운 법령에 적합한 것이었으며, 하원이 구상하였던 조직의 형태를 반영하였다.

1978 년 4 월 15 일은 미국 태권도 발전에서 역사적으로 또 하나의 중요하고 의미있는 날이다. 미국 올림픽 위원회 (USOC) 대의원들이 플로리다의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미국 체육회 태권도 위원회 (AAU Taekwondo Committee)를 “C” 클래스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곧 미국 올림픽 태권도 운동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또 태권도를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미체육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계기로 위원회는 1984년도 LA 올림픽때 부터 이익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3개 지역의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미국 올림픽 위원회(USOC)의 역도 대의원이던 하와이 출신이며 한국계인 리차드 유박사 (Dr. Richard You)가 김총재에게 태권도를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며 많은 수고를 했고, 나에게 팬암 게임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태권도를 “A”클래스 스포츠로 상승하도록 노력하라고 조언을 하였다. 유박사와 나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23회 올림픽 유치 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기도 하였다.

### 성공적인 회장임기 완수

미국 체육회 총회 기간중인 1978년 11월 29일 마이애미 (Miami, FL) 전미 체육회 태권도 위원회 회의에서 나는 미국 체육회 태권도 위원회 회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4년동안 나는 분산되고 조직되지 않았던 태권도 수련생들과 사범들을 통일되고 조직적인 기구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했다. 또한 이 조직은 미국 올림픽 위원회의 가맹단체로서 세계 태권도 연맹과 미국 체육회와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유일한 단체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나의 후임으로는 부회장으로 지난 3년간 활동해 온 워싱턴 디씨 (Washington D. C.)의 하워드대학에서 체육과 교수인 양동자씨가 선출되었다. 나는 4년동안 미국 태권도의 초석을 다지는데 자기 돈과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모든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한다.

### 팬암 태권도 연맹

미국체육회 태권도 위원회가 점차 자리가 좁혀가던 1976년부터 나는팬암조직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우선 북미주 협회를 조직하여 버클리, 멕시코, 푸에르토 리코, 하와이, 토론토(캐나다)등에서 1977년부터 해마다 시합을 주최했다. 남미와 중미도 같은 방법으로 조직되도록 후원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1977년에 시카고에서 열린 제 3회 세계 대회 (1977년 9월 14일-17일)를 기해 팬암 연맹(Pan American Taekwondo

Union)을 김운용 총재의 참가하에 조직하게 되었다. 김총재의 의견에 따라 코 큰 현지인이 회장을 한다는 취지에서 제 3 회 대회가 열린 시카고 대회, 대회장인 신경선씨의 제자인 덴 마로(Dan Marrow)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내가 사무총장으로 일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한 회칙을 통과시키고 다음 해인 1978년 9월에 제 1 회 팬암 대회를 치루기로 하였다. 대회장소는 멕시코 시로 문대원 사범이 대회장을 맡아 모든 준비를 하였다. 내가 준비하고 시카고에서 통과된 회칙에 따르면 팬암대회는 3 개 지역인 북, 중, 남미지역에서 돌아가면서 치루기로 되어 있었다. 또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가 팬암 회장을 맡아 2년씩 돌아가며 회장직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 있었던 제 1 회 팬암대회를 기해서 4년 임기로 중임할 수 있도록 회칙이 개정되었다. 이것이 결국은 팬암 조직에 많은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팬암 게임에서 태권도가 아시안 게임보다 일찍 공인을 받아 올림픽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되었는데, 그것은 김운용 총재의 많은 노력과 집념의 결과였다. 그와 관련해 전하고 싶은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미 체육회에서 팬암 스포츠 조직(PASO, Pan Am Sports Organization)을 대표하는 뮈겔 디캐플리레스 (Miguel Decapriles) 라는 교수가 있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헤이스팅스 법대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가 카라테에 호감을 갖고 태권도의 팬암진출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는 김운용 총재에게 전했다. 그러자 김총재는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였다. 그와 나는 디캐플리레스 교수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그는 마침 강의중이었다. 김총재는 나와 함께 그가 사무실로 돌아올 때까지 쫓그리고 앉아서 그를 기다렸다. 그의 그런 집념에 나는 그만 감동이 되고 말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팬암게임에 태권도가 가입되었으니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새삼 떠올리게 해준 사례이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1981년에 내가 팬암 태권도 연맹의 회장이 된 일이다. 제 2 회 팬암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텍사스주의 휴스턴에서 있었다. 미국 체육회 태권도 위원회 당시 회장이었던 양동자 회장이 중심이 되어 나를 팬암 회장으로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양회장은 나의 후임으로 태권도 위원회의 회장이 되었는데, 나를 예우하여 회장으로 선출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입장은 팬암연맹이 지난 2년 동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음은 물론 김운용총재가 팬암게임에 태권도를 공식 종목으로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김총재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그가 휴스턴에 오는 대로 상의를 하였는데 그의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아니었다. 시카고대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코 큰 사람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하는 것이었다. 평소 나는 태권도가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려면 김총재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믿어왔다. 그래서 나 대신에 태권도를 미국 체육회에 가입하는데 절대적 공로자인 데이빗 리빈즈 회장을 추천하기로 하였다. 나는 3개월 팬암 회장을 한 셈이다. 그 후로 팬암 태권도 연맹 조직에 공로가 있고 영어와 스페인어를 잘하는 문대원 사범을 사무총장으로 추천했고 나는 기술 심의회 의장으로 일했다. 그것이 팬암 연맹에서 나의 마지막 직책이었다.



**플로리다 협회:**  
앞줄 가운데가 저자,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회장을 맡았던 권재화 관장



**제 5 회 세계대회:**  
1982년 팬암지역이 에콰도르에서 개최된 제 5 회 세계대회 입장식

### 미국 올림픽 위원회 활동 -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나의 사회 활동

내가 스포츠 단체에 몸을 담고 중요한 자리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된 동기는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다. 조지아 주립 대학에서 대학원생으로 공부를 하면서 나는

조교로서 유도와 태권도 (당시 명칭은 Korean Karate)를 가르치고 있었다. 마침 전국 유도 대회가 1964 년도에 뉴욕에서 있었는데, 나는 조지아주를 대표로 유도 대회에 참가해 달라는 조지아 주 유도협회 회장의 부탁을 받고 뉴욕에서 마침 개최되고 있었던 세계박람회도 구경할 겸 뉴욕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시합에 가보니 미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많은 임원들도 일본 강도관 체제하에 움직였고 일본에 직수입해 온 일본선수들도 많았다. 내가 가지고 있던 대한유도 협회의 단증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시합에 참가하려면 하얀 띠를 매고 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에서 온 몇몇 선수들은 자존심을 꺾을 수가 없어서 시합에 불참 했다. 그러나 나는 조지아주 대표로 경비를 받으며 참석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나는 혼심을 다해서 시합에 임했다. 공부에 전념했던 가난한 유학생 시절이어서 경기 하나 하나가 너무 힘이 들었다. 나는 체력을 안배하는 작전으로 일관하였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면 되니까 절반으로 모든 경기를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결승에서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안간힘을 써서 결승전도 절반으로 이겼다. 이겼다고 자랑스럽게 시상대로 나아갔다. 그런데 시상식을 하기 위해 나는 1 등석으로 가려고 했는데, 나를 2 등석으로 자꾸 밀어내곤 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내가 1 등이 아니라 2 등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당시 유도 경기 승패규칙인 5 점 감점제를 잘 몰랐는데, 절반으로 이기면 1 점 감점, 한판으로 이기면 0 점으로 계산되는 레스팅에서 쓰이는 경기규칙을 채택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벌점이 총 4 점이고 상대는 계속해서 한판으로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벌점 2 점을 받아서 1 등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그런 뼈아픈 경험을 통해 값진 교훈을 얻은 것이었다. 운동경기는 경기규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승패가 가려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희생을 하더라도 규칙결정에 나의 최선을 다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해야 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나의 초심때문에 미국 유도 협회, 미국 체육회의 태권도 위원회, 팬암 태권도 연맹, 세계 태권도 연맹,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 그리고 미국의 올림픽 위원회등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자원해서 전개하게 되었다.



**백악관 방문:**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태권도팀 단장으로 출전후에당시 대통령이던 죠지 부시 대통령 내외와 함께 리셉션중 사진촬영을 했다.

**나의 올림픽 수상들:**  
 새미 리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와 그와 친분이 있던 고 손기정옹이 정화회장과 함께 점심을 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 손옹은 우리를 만난지 몇 달 후 타계하셨다.

## 세계 태권도 연맹

내가 세계 태권도 연맹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세계 태권도 연맹이 창설된 한국에서 제 1회 세계대회를 열게된 1973년에 이 대회에 미국 대표팀의 매니저로 참석하면서부터였다. 그후 미국 체육회 태권도 위원회가 정식으로 등록하면서 미국 태권도 협회와 세계 태권도 연맹은 서로 도와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태권도가 미국에서 인정받는 단체라는 사실이 세계 연맹이 국제 경기연맹과 같은 다른 세계 스포츠 연맹과 관련을 맺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안다. 반면에 미국 체육회 태권도 위원회는 한국에 있는 세계 태권도 연맹으로부터의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반론을 잠재울 수 있었고 미국 공인 태권도 조직에 힘이 되었다.

나는 이 두 단체에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79년부터 2005년까지 홍보 분과 위원 및 대학 분과 위원회 위원장등으로 일했으며, 1988년에는 세계 태권도 연맹을 대표해서 88 서울 올림픽 국제 평가 위원으로

참가하였다. 그리고 제 1 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대회에 미국팀 임원이나 세계 연맹 임원으로 참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협조도 아끼지 않았다.



조지 킬리안 국제 대학스포츠 연맹 회장,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저자



**제 4 회 북미 태권도 대회:**  
캐나다 토론토, 맨 왼쪽이 이 대회를 주관한 박종수 회장

## 학술활동

내 직업이 대학에서 무도를 가르치고, 특히 버클리 대학과 같은 환경에 임하다 보니 모든 것이 학술적이고 연구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습관에 익숙해질 수 밖에 없었다.

솔직히 나는 버클리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다. 시간을 쪼개서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미나, 연구 발표등에 참석했다. 특히 체육학과에서 매주 주최하는 세미나는 물론, 스포츠, 동양 철학, 한국학등의 세미나에는 꼭 참석하려고 노력하였다. 덕분에 나는 미국 올림픽 학술 회의, 전미 체육 교수 협의회, 국제 올림픽 위원회, 세계 태권도 학술회, 태평양 연안 국가 스포츠 과학 세미나등을 위시해 줄잡아 500 회이상 강의실과 태권도 실습장의 스피커가 되어야 했다. 물론 몇 몇 주제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태권도 보급, 발전에 관한 연구 조사 발표였던 셈이니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국 무도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셈이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근대 올림픽 100주년 기념 국제올림픽 총회

(과리)에서 3 분간 “스포츠와 정치”라는 주제로 연설한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 아는 바와 같이 이 모임에서 태권도가 시드니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제 1 회 태권도 심포지움:**  
필리핀 마닐라, 1995 년 (저자는  
심포지움 위원장으로 학술 행사를  
주관했다.)



**제 2 회 태권도 심포지움:**  
홍콩, 1997 년 (저자는 심포지움  
위원장으로 학술 행사를 주관했다.)

### 버클리 대학을 통한 한국과의 관계

버클리 대학에 부임해보니 한국계 교수는 나 하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서울 대학 정치학과를 창설한 고 최봉윤교수가 한국학과에 있다 퇴직하여 한국식당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러니 내가 버클리에 부임한 후, 한국에서 다녀 간 많은 교수들이나 방문객들의 연락은 시간이 갈수록 늘었다. 그 후에는 한국계 교수들의 수도 늘었고, 또 한국의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서 한국에서 오는 방문학자들의 수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세계 연맹과 국기원이 서울에 있으니, 나는 자연히 태권도 관계로 한국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또 많은 대학이나 협회의 부탁을 받아 80 년도부터는 많은 스포츠팀, 무용팀등과 체육교수들의 미국 방문을 주선하기도 했다. 특히 태권도, 유도, 검도팀들의 미국 방문을 도왔다. 태권도를 통한 한국과의 관계에 힘입어 많은 교환 교수, 방문 교수들과도 유대를 맺고 가능한 한 도우려고 노력을 하였다. 덕분에 나도 서울대와 연세대 체육과에 교환 교수로서의 경험도 하게 되었다.



## 끝맺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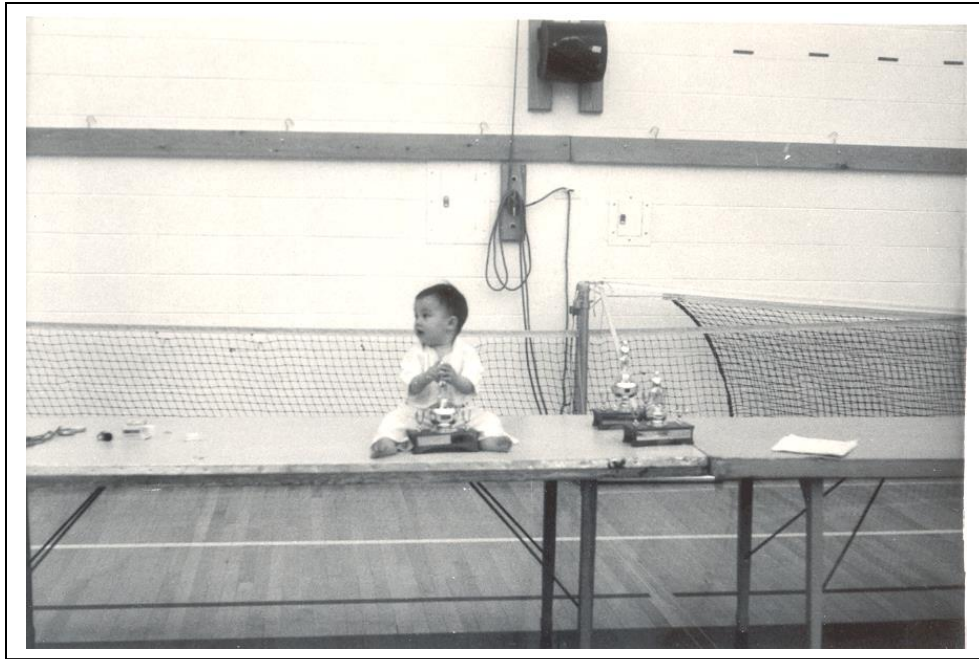
칠십 평생동안 배움의 터전인 학교, 특히 대학 체육 교육의 환경에서 배우고 연구하고 봉사해 온 것에 대해 나는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 나가고자 한다.

특히 내가 43년을 살아온 무대인 미국은 경제, 정치, 사회 및 스포츠 활동이 자유로우면서도 개척정신에 바탕을 둔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환경이다. 나는 이런 여건속에서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 정립 및 보급을 위해서 돌밭을 가는 황소와도 같은 삶을 살아왔다.

육, 칠십 년대에 미국에 유학을 왔거나 취업 이민을 한 한국인이면 다 거쳐야 했던 많은 역경과 스트레스를 나는 무도로 다져진 육체와 정신력으로 헤쳐나갔다. 그래서 6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미국의 일류대학인 버클리 대학의 체육교수라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 자리는 한국무도보급에 앞장을 서라는 소명이 함께 주어진 것이라 굳게 믿고 이제까지 37년을 그 소명을 생각하며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 같다. 더우기 나는 하늘이 맺어준 연분으로 영국계 어머니와 독일계 아버지 슬하의 1남 3녀중 막내인 앤 케일러와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다. 딸은 의학박사로 아들은 법학박사로 키웠다. 39년의 결혼생활이 성공적이고 또한 내가 태권도 및 타 무도 활동에 전념하여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처의 희생적인 도움과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4명의 손자 손녀를 두었으니 무척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며 만족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딸 결혼식에서



1968년도  
몬태나 대학  
재학시:  
학생들이  
만들어 준  
도복을 입고  
시합장에서  
놓고 있는  
것들이 지난  
아들 관홍

또한 미국에서, 특히 버클리대학에서, 100 개이상의 나라에서 유학을 온 미래의 세계 지도자들을 포함한 수만명의 학생들에게 한국 무도 특히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정신문화 유산인 태권도 정신과 예우법을 이해하고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늘이 준 기회로 믿으며 매일 최선을 다해 가르침에 임했다.

그리고 나는 항상 태권도가 타 무도들, 특히 일본무도, 중국무도등과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버클리 대학내의 무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현재도 그 연장선상에서 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하늘이 부르는 그 날까지 태권도를 향한 나의 사랑과 열정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태권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젊은 후예들에게 몇 마디 남기고 싶다. 언젠가 메스컴 광고에서 “우리 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요”라는 문구를 여러번 접한적이 있었다. 그렇다! 태권도는 누가 뭐래도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고유무도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키고, 개발하고 발전시킬 의무와 책임 그리고 최선의 노력과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둘째, 태권도는 이제 무려 182 개국이라는 회원국과 무려 8 백만이라는 수련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무도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태권도 종주국이라 하여도 182 개국중 하나의 회원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태권도의 보다 나은 발전과 미래를 위해 우리는 국제적인 감각을 익혀야 할 것이다. 특히 종주국으로서 항상 모범을 보이고 포용할 수 있는 아량과 태권도의 본고장이라는 위상을 높이 지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태권도가 무도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심판부정, 판정시비, 단증비리등등 실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그 인기와 열정이 날로 더해가지만, 어느 사이에 승부에만 집착하는 스포츠의 부정적인 측면만 배우고 본래 무도의 본질 그리고 스포츠의 페어 플레이(Fair Play)는 점점 퇴색해 가고 있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 우리는 태권도를 단지 경기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태권도가 가치관 형성과 인격도야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무도교육및 스포츠 교육의 일환을 재강조하고 태권도의 본질, 철학, 그리고 그 교육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자라나는 후예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더욱 체계화 시켜서 세계 8 백만이 넘는 수련인구를 지도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아가갈 의무와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연구에 더욱 몰두 하여야 한다.

끝으로, 이제 우리는 세계 태권도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때다. 110년이 넘는 근대 올림픽 조직에 이제 겨우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준으로해 18년의 경험밖에 없는 태권도는 올림픽 운동 정신 사상에 더 많은 것을 배우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개혁에 앞장선 제 2대 세계 연맹 조정원 총재 중심으로 태권도가 올림픽에 영구히 존속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참여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도 태권도가 세계화될 수 있는 발판이 자동적으로 마련되리라 믿는다. 각종 세계 태권도 대회에서는 지금 여기저기 한국에 대한 반발적인 감정에 판정시비등 복잡한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태권도 정신 정립의 뿌리인 화랑정신, 선비사상, 그리고 한국 근대화의 주축인 새마을 운동등을 재 평가하고 연구하여 21세기 이후의 올림픽 사상과 운동에 기여할 수 있고 또 한국 태권도정신을 세계화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내 자랑을 하는 것같아 끝까지 망설이다 본 원고를 내게 된 것은 물론 주위의 권고도 많았지만,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뜻에서 비록

줄필이나마 나의 기억과 보존 자료를 참고해 몇 자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 9월 25일

민경호

버클리대학 국제무도연구소에서